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노언경** · 정송*** · 홍세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비행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개인, 가족, 학교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1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행의 잠재프로파일은 모두 4개로 각각 분류되었으며, 그 형태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음주·폭행·도박을 많이 하는 집단, 절도를 많이 하는 집단, 흡연·음주를 많이 하는 집단, 비행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비행을 중간 수준으로 하는 집단, 대부분의 비행이 높은 수준이며 특히 무단결석을 많이 하는 집단, 음주·음란물 관련 비행을 많이 하는 집단, 비행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영향요인 검증 결과, 초등학생은 성별, 정서조절, 낙관주의, 학업유능감이, 중학생은 성별, 정서조절, 가족관계의 질, 부모정서지원, 학업유능감, 친구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국 대규모 자료로 아동·청소년 집단이 어떤 유형의 비행 형태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비행 유형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영향요인들을 검증하였으므로, 비행 예방과 적절한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잠재프로파일, 아동·청소년, 비행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Grant in 2014.).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seehong@korea.ac.kr

I. 서 론

‘201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소년 범죄자(0~18세)는 8만 3천 60명으로, 성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자의 약 4.4%를 차지했다. 전체 소년 범죄자의 수와 그들 중 초범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3). 즉, 범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해마다 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비행은 학업 및 대인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 고유의 과업 발달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약물, 음주, 흡연, 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더 심각한 성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이유신, 2013). 청소년 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성인 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래, 1996; 이순래, 2005). 이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지연령화 현상이다. 지난해 전국 10개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년사범의 비행 실태와 원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6.4%가 첫 비행시기가 ‘중학교 때’라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응답한 비율도 9.9%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성매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과 음주, 절도를 경험한 비율은 약 90%에 가깝게 나타났다(한겨레, 2013).

이는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며, 범죄가 반복되면서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304명이며, 절도와 폭력을 더하면 그 수는 1만 3천명에 달한다. 이는 일 년 사이 38.5%나 증가한 수치이며 수치적인 증가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적절한 처벌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촉법소년들의 재범률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에 있어 심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비행은 해당 시기뿐 아니라 향후 성인으로서의 성장 과정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행의 원인과 이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집단에 따른 특성 차이 또는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더불어 청소년 비행의 정의와 비행 분류 방식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제시되지 않아, 연구결과들을 일관된 기준을 통해 비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 각기 다른 의미와 맥락을 가지는 개별 비행의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의 저연령화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 고등학생보다 연령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특성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초등학생)과 청소년(중학생)을 대상으로 경험한 비행 유형에 따라 하위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령별 비행 유형에 따른 집단 특성 파악이 가능하며, 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관계를 통해 비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비행

비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하며, 아동·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Cohen, 1955; Hirschi, 1969). 좁은 의미에서 아동·청소년 비행은 성인이 하면 반드시 비행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위비행’이라고 한다(김준호, 1994). 반면, 넓은 의미에서 아동·청소년 비행은 좁은 의미에서의 아동·청소년 비행부터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까지 포함한다.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행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행위 등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중비행’이라고도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비행을 아동

이나 청소년의 지위에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규정된 범죄 행위까지 포함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 시청과 중비행에 해당하는 절도, 폭행, 강탈, 도박, 기물파손을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비행에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인간은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Bronfenbrenner, 1979). 아동·청소년 시기의 비행 역시 개인적 요인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그들을 둘러싼 주요 환경적 요인인 가족, 학교 특성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 비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보건복지부(2008)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의 비율은 83.8%가 남자, 16.2%가 여자로 남자 청소년의 비행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 Eve, 1976; Steffensmeier & Allan, 1996; 홍태경, 류준혁, 2011). 더불어 비행의 빈도뿐만 아니라 비행의 원인이나 유형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혀져 왔다(이성식, 2005). Rantakallio, Myhrman and Koiranen(1995)은 남성의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속성, 여성의 수동적이고 온화한 속성으로 인해 비행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설명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남성들은 성취 지향적이고 독립적인 반면,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견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시기에 남학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문제행동이 두드러지는 반면, 여학생은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내면적 문제행동이 두드러진다는 경험적 연구들(손은정, 장유진, 2008; 신혜섭, 2005)로 뒷받침된다. 한편, 성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여학생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남학생과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ien & Hien, 1998).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아동·청소년 비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또래 집단의 비행 압력을 덜 받으며, 비행친구들과 지내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박현선, 이상균, 2008; 윤진 외, 1997; 이동원, 2005).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박현수, 2011; 박현수, 김도우, 이재영, 2010).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Owens, 1994).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신을 확대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기에도 취약하다(배영태, 2003).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정서조절능력도 아동·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정서조절능력은 개인이 정서를 인식·이해하고, 수용하며, 개인의 목표나 상황에 부합하게 정서를 유연하게 조절하며 사용하는 것(Gratz & Roemer, 2004)을 의미한다.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약물남용, 성격장애 등 다양한 정신 병리와 관련이 있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청소년기에는 특히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변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정서조절능력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지나친 충동성으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최인재 외, 2010).

정서조절능력 뿐만 아니라 낙관주의 또한 아동·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강옥, 2000), 기질적인 낙관주의와 귀인 양식으로서의 낙관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기질적인 낙관주의는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성(Scheier & Carver, 1992)으로, 낙관성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 획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낙관성이 낮으면 쉽게 포기하는 특성이 있다. 귀인 양식으로서의 낙관주의는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낙관성이 높으면 나쁜 사건의 원인을 외부적, 불안정적, 특수한 원인으로 설명하는 반면, 낙관성이 낮으면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는 특성이 있다(Buchanan & Seligman, 1995). 이러한 낙관주의적 경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능동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비행의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오히려 비행을 시도하게 될 수도 있다.

Hirschi(1969)의 사회유대이론에서는 사회화와 순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비행의 저지를 확률이 적어진다고 하였다.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적 유대는 일차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 개인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는 아동·청소년기의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자녀에게 애정, 신뢰, 관심 등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원’, 진학이나 진로, 학업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원’, 용돈이나 준비물 등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된다(박지원, 1985). 이러한 부모의 지원은 자녀가 부모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다(장덕희, 2010). 반면, 아동·청소년기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이나 지원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면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애착 불안이 형성되어,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며, 타인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공격성과 비행을 경험하기 쉽다(손윤옥, 2013).

또한 사회유대이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와의 유대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관계의 질(오승환, 2009; 정현주, 이주리, 2009; Emery & Forehand, 1994; Radke-Yarrow & Brown, 1993)과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Cummings et al., 2004) 모두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관계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부모의 갈등, 낮은 친밀성, 부모의 적대감과 거부, 의사소통의 부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Jurich, Polson, Jurich & Bates, 1985). 반면, 친밀하고 유대감이 좋은 가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Garnier & Stein, 1998; Hawkins & Weis, 1985).

학교는 아동·청소년기에 개인이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 중 하나이다. 가족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높은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정현주, 이주리, 2009). Hirschi(1969)의 사회유대이론은 학업성적을 학교에 대한 애착 또는 관여로 설명한다. 이 때, 애착은 애정적 결속을, 관여는 자신이 사회에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관여가 낮아지고, 이는 비행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학업성취가 낮거나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은 아동·청소년은 문제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며(오승환, 2009), 학업성취가 높으면 이것이 긍정적 자아평가로 이어져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다(정현주, 이주리, 2009).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타인은 교사와 친구들이다. 특히 교사의 관심, 지지, 격려, 기대를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 유대 관계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장덕희, 2001; Constantine & Bernard, 2001; 홍봉선, 이영아, 2009). 하지만 교사의 무관심 또는 낙인은 문제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유성경, 1999). 친구와의 관계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 중 하나이다. Akers(1998)의 사회학습이론과 Hirschi(1969)의 사회유대이론은 각기 다른 견해로 아동·청소년기의 또래관계와 비행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친구와 친밀할수록, 서로 비슷한 행동을 할 기회가 많고, 서로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박현선, 이상균, 2008; Haynie, 2001; Kandel, 1978). 예를 들면,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친구의 수가 많고 그들에게 친밀감을 느낄수록 문제 행동을 많이 하며, 비행을 저지를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비행친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을수록, 즉 또래 연결망에서 중심성이 높을수록 반항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McFarland, 2001), 비행에 관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Haynie, 2001). 반면 사회유대이론에서는 친구의 비행여부와 상관없이 친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일탈을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았다. 한편, 친구가 적을수록 비행 성향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Demuth, 1997), 또래와의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비행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김준호, 김선애, 2000).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친구관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그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개인적 특성 변수를 성별,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낙관주의로, 가족특성 변수를 가족관계의 질, 부모의 지원(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원)으로, 학교특성 변수를 학업유능감,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로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를 연구 모형에 투입하여, 아동·청소년 비행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 유형에 따라 유사한 집단을 유형화할 때 몇 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집단을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개인, 가족, 학교 관련 변수들 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1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집된 전국단위 대규모 표집조사이다(최인재 외, 2011). 분석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2,943명, 중학생 2,844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 남자는 1,520명(51.6%), 여자는 1,423명(48.4%)이었으며, 중학생 남자는 1,553명(54.6%), 여자는 1,291명(45.4%)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비행은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에 대한 각 질문의 경험 빈도(1=전혀 없음, 2=1~2번, 3=3~4번, 4=5번 이상)를 응답으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과 경험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비행 문항 내용

종속 변수	문항 내용	경험 비율(%)	
		초등	중등
비행 경험 여부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2.8	16.0
	술을 마신 적이 있다	21.1	28.6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0.5	21.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5.1	16.7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3.7	11.3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4	4.3
	가출을 한 적이 있다	5.3	8.5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3.0	32.0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	3.5	13.8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10.3	25.1

표 2

관련 변수

	영역	문항수	문항 내용
개 인	성별	1	남자=1, 여자=0
	자아존중감	5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
	정서조절	3	부적 정서 체험 후에도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
	낙관주의	3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며,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의 정도
가 족	가족관계 질	5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이나 친밀의 정도
	부모정서지원	6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
	부모정보지원	4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과 관련한 정보를 지원하는 정도
	부모경제지원	4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
학 교	학업유능감	3	학업에 대한 유능감을 갖고 있는 정도
	교사관계	3	교사와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한 교류를 하는 정도
	친구관계	3	친구와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비행의 유형에 따라 분류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해당 문항들의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

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25~.94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

학교급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개인	자아존중감	3.23	3.06	.75	.69	.914	.908
	정서조절	3.06	2.65	.76	.72	.817	.787
	낙관주의	3.19	2.85	.73	.68	.818	.786
가족	가족관계 질	3.50	3.19	.61	.69	.914	.926
	부모정서지원	3.46	3.10	.67	.73	.942	.942
	부모정보지원	3.47	3.11	.66	.74	.891	.893
	부모경제지원	3.50	3.38	.56	.57	.725	.762
학교	학업유능감	3.15	2.79	.65	.65	.827	.818
	교사관계	3.17	2.59	.79	.83	.888	.888
	친구관계	3.50	3.33	.65	.65	.874	.863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비행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7.11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을 분류할 때 응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하위집단을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이라고 하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변수들의 관계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기존의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과 달리,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을 기반으로 한다(Bergman & Magnusson, 1997). 더불어 다소 임의적인 기준 점수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는 군집분석과 달리, 모형을 설정한 뒤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집단의 수를 결정하며, 확률을 이용하여 해석이 용이한 결과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Magidson & Vermunt, 2002).

일반적으로 잠재프로파일의 수는 탐색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되므로, 최종모형 선택을 위해 분류의 질,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을 기준으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먼저 분류의

질은 Entropy 값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추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Dias & Vermunt, 2006).

$$E_k = 1 - \frac{\sum_i \sum_k -P_{ik} \ln P_{ik}}{N \ln(K)} \quad (1)$$

P_{ik} 는 집단 k 에 속할 개인 i 의 사후 확률을 나타내며 N 은 표본 크기, K 는 잠재 계층의 수를 나타낸다. Entropy는 0~1 사이로,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한다. 대략 0.8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Clark, 2010).

다음으로 정보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t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IC)(Sclove, 1987)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IC = -2 \ln(L) + 2p \quad (2)$$

$$BIC = -2 \ln(L) + p[\ln(n)] \quad (3)$$

$\ln(L)$ 은 log likelihood, p 는 추정 모수의 수,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한다. SABIC는 BIC 공식에서 n 대신 $n^* = (n+2)/24$ 를 대입하며, 3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형비교 검증은 조정된 차이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LRT)(Lo, Mendell & Rubin, 2001)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McLachlan & Peel, 2000)을 이용하였다. 두 가지 모두 잠재계층이 k 개인 모형을 평가할 때, 잠재계층이 $k-1$ 개인 모형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결과의 p 값은 k 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 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쓰인다. p 값이 유의하면 k 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 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선택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들이 모두 포함된 조건모형으로 잠재 계층의 수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하였으며, 최종모형 분석 결과에서 제시되는 다항로짓계수를 통해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10가지 비행 항목에 관한 응답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며,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족, 학교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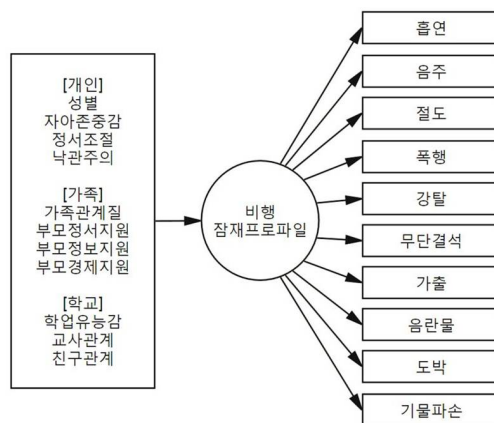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초등학교생의 비행

잠재프로파일을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해 분류의 질,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을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늘려가며 살펴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초등학생 비행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기준

분류 기준		잠재프로파일의 수			
		2개	3개	4개	5개
분류의 질	Entropy	0.999	0.999	0.999	수렴 실패
	AIC	12646.8	9017.5	6463.4	
	BIC	12897.3	9399.2	6976.3	
	SABIC	12763.8	9195.8	6703.0	
모형비교 검증*	LMRLRT	0.514	0.562	0.491	
	BLRT	0.000	0.000	0.000	

* LMRLRT와 BLRT는 p 값을 제시하였음.

Entropy 값은 모두 .999로 거의 정확하게 분류되며, AIC와 BIC, SABIC는 모두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작아졌고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5개일 때 수렴에 실패하였으므로, 잠재프로파일이 4개인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LMRLRT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BLRT는 모두 유의하므로, 이 기준들로는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집단 수 분류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분류의 질, 정보지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잠재프로파일 4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하므로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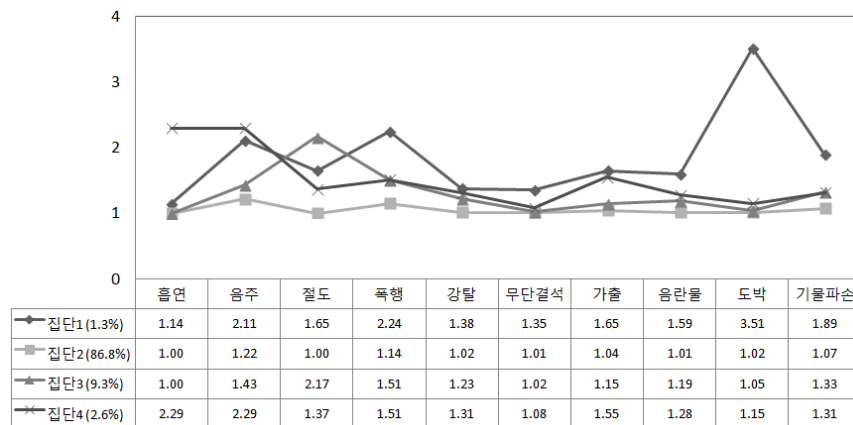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생 비행의 잠재프로파일 형태 및 비행유형별 평균

도출된 잠재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집단1은 음주와 폭행, 도박을 많이 하는 집단으로 전체의 1.3%, 집단2는 대부분의 비행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으로 전체의 86.8%가 여기에 속했다. 집단3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절도를 비교적 많이 하는 집단으로 9.3%를 차지하였고, 집단4는 흡연과 음주 경험이 두드러진 집단으로 2.6%가 여기에 속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을 각각 음주/폭행/도박 집단, 저비행 집단, 절도 집단, 흡연/음주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의 평균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저비행 집단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밖의 모든 관련 변수들의 평균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음주/폭행/도박 집단에서 남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밖의 모든 변수들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비행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저비행 집단, 절도 집단, 흡연/음주 집단, 음주/폭행/도박 집단 순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5

초등학생 비행의 잠재프로파일 별 변수들의 평균

영역		음주/폭행/도박	저비행	절도	흡연/음주
개 인	성별	0.865	0.491	0.601	0.840
	자아존중감	2.708	3.279	2.993	2.891
	정서조절	2.513	3.120	2.732	2.647
	낙관주의	2.874	3.236	2.945	2.916
가 족	가족관계 질	3.081	3.555	3.226	3.136
	부모정서지원	3.063	3.508	3.197	3.104
	부모정보지원	3.108	3.508	3.246	3.167
	부모경제지원	3.155	3.525	3.382	3.327
학 교	학업유능감	2.604	3.215	2.877	2.689
	교사관계	2.595	3.218	2.936	2.853
	친구관계	3.018	3.539	3.309	3.251

잠재프로파일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변수 중 개인요인은 성별, 정서조절, 낙관주의, 가족요인은 가족관계 질, 학교요인은 학업유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 참고).

표 6

초등학생 비행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

영역		집단1 vs 집단2		집단1 vs 집단3		집단1 vs 집단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성별	-1.846 ***	0.512	-1.353 *	0.523	-0.106	0.599
	자아존중감	0.309	0.317	0.348	0.333	0.293	0.388
	정서조절	0.864 *	0.367	0.396	0.384	0.286	0.449
	낙관주의	-0.950 **	0.315	-0.745 *	0.333	-0.485	0.431
가족	가족관계 질	0.429	0.288	-0.024	0.306	-0.107	0.377
	부모정서지원	0.138	0.493	-0.120	0.505	-0.293	0.546
	부모정보지원	-0.341	0.347	-0.274	0.363	-0.167	0.405
	부모경제지원	0.242	0.449	0.516	0.457	0.547	0.505
학교	학업유능감	0.697 *	0.284	0.285	0.302	-0.148	0.353
	교사관계	0.213	0.250	0.253	0.264	0.334	0.297
	친구관계	0.245	0.240	0.178	0.254	0.241	0.301

영역		집단2 vs 집단3		집단2 vs 집단4		집단3 vs 집단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성별	0.493 ***	0.137	1.740 ***	0.324	1.246 ***	0.344
	자아존중감	0.040	0.131	-0.016	0.243	-0.056	0.265
	정서조절	-0.467 **	0.146	-0.577 *	0.281	-0.110	0.303
	낙관주의	0.205	0.156	0.465	0.318	0.260	0.335
가족	가족관계 질	-0.453 **	0.150	-0.536	0.279	-0.083	0.299
	부모정서지원	-0.258	0.164	-0.432	0.287	-0.174	0.309
	부모정보지원	0.067	0.157	0.174	0.254	0.107	0.275
	부모경제지원	0.274	0.149	0.305	0.274	0.031	0.294
학교	학업유능감	-0.412 **	0.137	-0.846 ***	0.241	-0.433	0.260
	교사관계	0.041	0.105	0.122	0.180	0.081	0.197
	친구관계	-0.067	0.116	-0.004	0.210	0.063	0.223

주1. 집단1=음주/폭행/도박 집단, 집단2=저비행 집단, 집단3=절도 집단, 집단4=흡연/음주 집단

주2. 각 집단별 비교 시 앞에 있는 집단이 참조집단(reference group)임.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저비행 집단보다는 음주/폭행/도박 집단이나 절도 집단에, 절도 집단보다는 흡연/음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의 빈도가 높으며, 남학생의 비행 유형이 흡연, 음주, 폭행 등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조절을 잘 하는 학생일수록 다른 세 집단보다 저비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낙관적일수록 저비행 집단이나 절도 집단 보다는 음주/폭행/도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낙관주의의 경우 초등학생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절도 집단보다는 저비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업유능감이 높을수록 다른 세 집단보다는 저비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결과에 의하면 친밀하고 유대감이 좋은 가족관계와 높은 학업유능감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2. 중학생의 비행

중학생 비행의 잠재프로파일 분류를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늘려가며 분류 기준을 살펴보았다. 표 7에 제시한 것처럼 Entropy 값은 모두 .98이상으로 모든 모형에서 매우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AIC와 BIC, SABIC는 모두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까지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잠재프로파일이 5개인 모형에서 약간 증가하였으므로 4개인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LMRLRT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에서, BLRT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5개인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LMRLRT를 기준으로 하면 3개인 모형이, BLRT를 기준으로 하면 4개인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프로파일이 4개인 모형이 분류의 질, 정보지수, BLRT의 기준에서 가장 적합하므로, 이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7

중학생 비행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기준

분류 기준		잠재프로파일의 수			
		2개	3개	4개	5개
분류의 질	Entropy	.998	.998	.995	.986
정보지수	AIC	43629.3	40722.5	36409.2	37279.0
	BIC	43878.6	41102.3	36919.6	37920.0
	SABIC	43745.2	40899.0	36646.4	37576.9
모형비교 검증*	LMRLRT	.000	.038	.608	.256
	BLRT	.000	.000	.000	1.000

* LMRLRT와 BLRT는 p 값을 제시하였음.

중학생 비행의 최종 잠재프로파일은 그림 3과 같다. 잠재프로파일을 각각 살펴보면, 집단1은 모든 비행 유형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였다. 집단2는 대부분의 비행을 모두 높은 수준이며, 무단결석이 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전체의 1.5%가 여기에 속했다. 집단 3은 모든 비행을 낮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집단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하였으며, 집단 4는 흡연과 음란물 관련 비행이 두드러진 집단으로, 전체의 7.6%가 여기에 속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잠재프로파일을 중간수준 집단, 고수준/무단결석 집단, 저비행 집단, 흡연/음란물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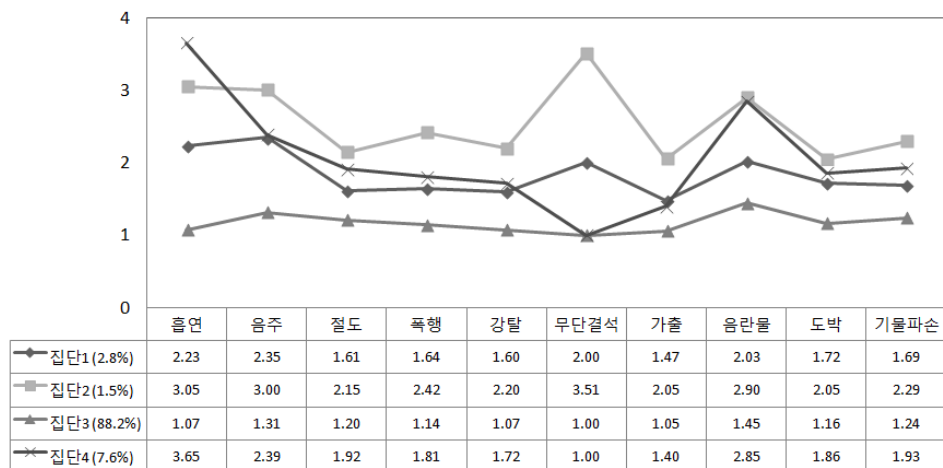


그림 3. 중학생 비행의 잠재프로파일 형태 및 비행유형별 평균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별 변수들의 평균을 표 8에 제시하였다. 초등학생 비행과 유사하게 저비행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속한 비율이 높았고, 그 밖의 관련 변수들의 평균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반면 흡연/음란물 집단에 남학생들이 속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비행 집단을 제외하면, 중간수준 집단에서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교사관계의 평균이 높았고, 고수준/무단결석 집단에서 부모정서지원의 평균이 높았으며, 흡연/음란물 집단에서 가족관계 질, 부모정보지원, 부모경제지원, 학업유능감, 친구관계의 평균이 높았다. 따라서 비행의 유형에 따라 각 변수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중학생 비행의 잠재프로파일 별 변수들의 평균

영역		중간수준	고수준/무단결석	저비행	흡연/음란물
개인	성별	0.615	0.732	0.517	0.806
	자아존중감	2.926	2.762	3.085	2.924
	정서조절	2.482	2.309	2.681	2.366
	낙관주의	2.718	2.601	2.869	2.700
가족	가족관계 질	2.915	2.746	3.228	2.943
	부모정서지원	2.782	2.870	3.141	2.842
	부모정보지원	2.821	2.854	3.141	2.935
	부모경제지원	3.224	3.146	3.394	3.276
학교	학업유능감	2.393	2.292	2.840	2.431
	교사관계	2.483	2.382	2.615	2.389
	친구관계	3.214	3.065	3.342	3.335

잠재프로파일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변수 중 개인요인은 성별, 정서조절이, 가족요인은 가족관계 질, 부모정서지원이, 학교요인은 학업유능감, 친구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9 참고).

구체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중간수준 집단이나 저비행 집단보다 흡연/음란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저비행 집단보다 고수준/무단결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반적인 비행의 수준이 높으며, 흡연이나 음란물과 같은 특정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행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비행의 성별 차이가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조절을 잘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음란물 집단보다는 중간수준 집단이나 저비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족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고수준/무단결석 집단보다는 다른 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초등학생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정서조절능력과 가족관계의 질이 중학생 시기에도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표 9

중학생 비행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

영역		집단1 vs 집단2		집단1 vs 집단3		집단1 vs 집단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성별	0.510	0.439	-0.459	0.250	1.095 ***	0.308
	자아존중감	-0.160	0.358	-0.133	0.223	-0.035	0.277
	정서조절	-0.381	0.462	0.050	0.222	-0.552 *	0.270
	낙관주의	0.118	0.437	-0.132	0.255	0.120	0.309
가족	가족관계 질	-0.815 *	0.371	0.184	0.262	-0.066	0.308
	부모정서지원	0.873 *	0.426	0.391	0.257	-0.020	0.303
	부모정보지원	0.208	0.354	0.095	0.220	0.257	0.256
	부모경제지원	-0.210	0.362	-0.024	0.235	-0.006	0.274
학교	학업유능감	-0.073	0.408	1.155 ***	0.241	0.308	0.271
	교사관계	-0.070	0.363	-0.371	0.191	-0.300	0.210
	친구관계	-0.064	0.294	-0.067	0.196	0.420	0.264

영역		집단2 vs 집단3		집단2 vs 집단4		집단3 vs 집단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성별	-0.968 **	0.369	0.585	0.406	1.553 ***	0.192
	자아존중감	0.027	0.296	0.125	0.336	0.098	0.193
	정서조절	0.431	0.413	-0.172	0.438	-0.602 **	0.175
	낙관주의	-0.249	0.366	0.002	0.402	0.251	0.197
가족	가족관계 질	1.000 ***	0.277	0.749 *	0.318	-0.251	0.183
	부모정서지원	-0.482	0.351	-0.893 *	0.385	-0.411 *	0.183
	부모정보지원	-0.113	0.284	0.049	0.311	0.162	0.147
	부모경제지원	0.186	0.291	0.204	0.317	0.018	0.161
학교	학업유능감	1.227 ***	0.344	0.381	0.361	-0.846 ***	0.146
	교사관계	-0.301	0.317	-0.230	0.328	0.071	0.107
	친구관계	-0.003	0.233	0.484	0.284	0.487 *	0.198

주1. 집단1=중간수준 집단, 집단2=고수준/무단결석 집단, 집단3=저비행 집단, 집단4=흡연/음란물 집단

주2. 각 집단별 비교 시 앞에 있는 집단이 참조집단(reference group)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정서지원이 높을수록 흡연/음란물 집단보다는 저비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부모의 정서지원은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정서지원이 높을수록 중간수준 집단이나 흡연/음란물 집단보다는 고수준/무단 결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8을 살펴보면, 저비행 집단의 부모 정서지원 평균이 높은 반면, 나머지 세 집단의 평균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비행수준을 낮추는 데 부모의 정서지원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변수의 영향력이 비행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아동·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에 대한 유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다른 세 집단보다 저비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에도 학업유능감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저비행 집단보다는 흡연/음란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친구관계는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중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개인에게 부모보다는 친구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특히 또래에 대한 동조성이 높아지며(손정화, 2008; 김정남, 2010), 이는 긍정적인 행위보다는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박순길, 2000; 왕지선, 2004). 특히, 흡연이나 음란물은 친구들에 의해 학습이 가능하고,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비행이라는 점에서, 특히 친구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박순길, 2000; 박순길, 조중열, 박영호, 2003).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각각 분류하고, 개인, 가족, 학교관련 변수들이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행의 잠재프로파일은 특정 비행 경험에 따라 각각 4개로 분류되었으며, 그 형태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비행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속하였다. 비행 집단으로 분류된 프로파일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비행수준은 대체로 낮으며, 특정 비행 경험을 제외하고는 잠재프로파일 별 비행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중학생은 잠재프로파일 별 비행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종류에 따라 초등학생은 음주, 폭행, 도박을 많이 하는 집단, 절도를 많이 하는 집단,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중학생은 모든 비행을 중간 수준으로 하는 집단, 대부분의 비행이 높은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무단결석을 많이 하는 집단, 음주와 음란물과 관련된 비행을 많이 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즉, 흡연이나 음주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행이고, 절도, 폭행, 도박은 초등학생에게 주로 나타나는 비행이며, 무단결석, 음란물은 중학교 시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 중 평생 동안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평생 흡연 경험률이 26.3%이며, 이들 중 첫 흡연경험 연령이 12.8세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저 연령대에서 흡연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평생 음주 경험률이 51.0%, 첫 음주 경험 연령이 13.0세로 흡연과 마찬가지로 저 연령대에서 음주를 경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사회적으로도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초등학생 시기부터 예방 및 치료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이경상, 김지연, 최수미, 이순래, 한영근, 2012).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다양한 비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 조절을 잘 할수록,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에 대한 유능감이 높을수록 비행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이 비행을 경감시키는,

아동·청소년 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정서조절 능력은 개인의 의지와 학습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보호요인이다. 정서조절 신념에서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며, 이는 일반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보다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선, 2010).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불안이나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표출하거나 이에 대한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여러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이보경, 2005), 비행은 청소년기 부적응의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 비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서는 목표달성의 실패, 부모의 사망, 친구와의 이별과 같은 긍정적 자극의 소멸, 친구들의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 자극의 발생 등의 긴장요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본다(Agnew, 1992).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들이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처 방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정서조절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나 신념 등을 향상시켜, 개인의 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서조절에 대한 인지적 전략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어릴수록 인지적 전략보다 상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므로(Brown, Covell & Abramovitch, 1991), 인지적 전략에 대한 충분한 개발을 통해 청소년기에 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낙관주의가 높을수록 도박을 접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흡연이나 음란물을 접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낙관주의나 친구관계는 아동·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 이 변수들이 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시기의 도박은 학업이나 정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이후 성인기의 도박 중독에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등학교 시기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하는 돈내기 게

임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이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 경기 돈내기, 사설 온라인 게임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성인용 도박인 로또와 스포츠 토토를 경험해 본 비율도 각각 37.5%, 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돈내기 게임의 최초 경험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25.6%가 게임 도박을 하는 이유로 ‘혹시 돈을 딸지 몰라서’ 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들었다(정재국, 김영곤, 2013). 더불어 본 연구와 같이 초등학생 시기에 도박을 많이 하는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된 것은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관되는 결과이다(장은진 외, 2010; 정재국, 김영곤, 2013; NRC, 1999).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흡연이나 음란물 비행을 많이 하는 중학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이 집단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사회학습이론 중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는 친밀한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의해 비행을 학습하는 것이라 주장한다(Reid, 2003). 즉, 주변의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친구들과 관계가 좋을수록 그런 비행에 접하기 쉽고, 모방하게 되며, 비행의 위험이나 심각성을 덜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행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며,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미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청소년기 비행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비행에 따른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김명희, 조정민, 전미영, 2005; 정문희, 김미혜, 김정아, 2007; 장은진 외,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포괄적인 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 집단이 어떤 유형의 비행 형태에 대해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된 각 집단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개별 청소년들의 개인, 가정, 학교 요인들을 통해 비행 유형을 예측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는 여러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을 예방할 때, 학교급에 따라 청소년들의 비행 형태를 예측하고, 각 비행 형태에 따른 관련 요인을 이용하여 적합하게 개입하는 데 도움을 줄 정책 수립에 하나의 토대가 될 만한 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 옥 (2000). **낙관성과 사회적 지지가 암 환자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희, 조정민, 전미영 (2005).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1, 63-71.
- 김정남 (2010). **또래동조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 (1994).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17, 63-94.
- 김준호, 김선에 (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1), 25-50.
- 박순길 (2000). **청소년의 흡연·음주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순길, 조증열, 박영호 (2003). 또래비행동조, 신체적 성숙 및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473-486.
- 박지선 (2010).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정서와 자기개념 비교. **스트레스연구**, 18(1), 29-39.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선, 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자아 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박현수 (2011). 자아통제와 기회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7(3), 121-146.
- 박현수, 김도우, 이재영 (2010).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6(1), 59-92.
- 배영태 (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손윤옥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은정, 장유진 (2008). 중학생의 성별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자기에 및 지배성의 차이.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80-481.
- 손정화 (2008).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친구동조성과 초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오승환 (2009).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영향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학교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61-181.
- 왕지선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또래동조성, 자존감 및 외로움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성경 (1999). 적응유연성 발달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청소년상담연구**, 7, 26-40.
- 윤진, 장근영, 박윤창, 김도환 (1997). 비행개입수준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5-166.
- 이경상, 김지연, 최수미, 이순래, 한영근 (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동원 (2005).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 자아개념의 제 차원과 비행유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357-383.
- 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4, 9-42.
- 이보경 (2005).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우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식 (2005). 청소년비행 원인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패널 두 연령집단에 서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70, 265-292.
- 이순래 (1996).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8, 39-63.
-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Moffitt의 이질적 비행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6(4), 269-300.
- 이유신 (2013). **청소년 가출비행의 상습화와 심화**.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덕희 (2010). 보호요인이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21-43.

- 장은진, 유채영, 최해경, 권선중 (2010). **도박중독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초등학생 대상**.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문희, 김미혜, 김정아 (2007). 초등학생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4, 320-327.
- 정재국, 김영곤 (2013).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청소년 게임도박문제 실태조사 발표**. 광주: 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정현주, 이주리 (2009).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평가에 관련된 부모과정과 학교과정의 보호적-안정화 기능. **한국생활과학지**, 18(3), 1-10.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김윤희, 김혜인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조사결과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이기봉, 김현주, 박경옥, 이명선, 이은경 (20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건강 안정(보호) 지표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3). **2013 청소년 통계**. 대전: 통계청.
- 한겨레 (2013.6.19.). 소년원 수용 청소년 “비행 시작 시기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2431.html에서 2014년 7월 4일 인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청소년 비행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봉선, 이영아 (2009). 환경요인과 청소년범죄의 관계에서 누적위험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1(3), 45-67.
- 홍태경, 류준혁 (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3), 113-118.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291-319.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vard Univ Press.

- Brown, K., Covell, K., & Abramovitch, R. (1991). Time course and control of emotion: Ag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37(2), 273-287.
- Buchanan, G. M., & Seligman, M. E. P. (1995). *Explanatory style*. Hillsdale, NJ: Erlbaum.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 Cohen, A. (195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Chicago: Free Press.
- Constantine, N., & Bernard, B. (2001).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 resilience assessment module technical re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8(2), 122-140.
- Cummings, E. M., Goeke-Morey, M. C., & Papp, L. M. (2004). Everyday marital conflict and chil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 191-202.
- Demuth, S. (1997). *Understanding the "loner": Delinquency and the peer, family, and school relations of adolescents with no close friendships*. Presented at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Meeting. Chicago, IL.
- Dias, J. G., & Vermunt, J. K. (2006). Bootstrap methods for measuring classification uncertainty in latent class analysis. In A. Rizzi, & M. Vichi (Eds.), *Proceedings in computational statistics*(pp.31-41). Heidelberg: Springer.
- Emery, R. E., & Forehand, R. (1994).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 M. J.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pp.64-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nier, H. E., & Stein, J. A. (1998). Value and the family: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Youth and Society*, 30, 89-120.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 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 253-263.
- Hawkins, J. D., & Weis, J. G. (1985). The social developmental model: 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nquency preventio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6, 73-97.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1152-1168.
- Hien, D., & Hien, N. M. (1998). Women, violence with intimates, and substance abuse: Relevant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recommendation for future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Drug Alcohol Abuse*, 24, 419-438.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nsen, G. J., & Eve, R. (1976). Sex differences in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popular sociological explanations. *Criminology*, 13, 427-448.
- Jurich, A. P., Polson, C. J., Jurich, J. A., & Bates, R. A. (1985). Family factors in the lives of drug users and abusers. *Adolescence*, 20, 143-159.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 37-44.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Pathological Gambling: A critical review*.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 Radke-Yarrow, M., & Brown, E. (1993).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in children of

- multiple-risk famil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81-592.
- Rantakallio, P., Myhrman, A., & Koiranen, M. (1995). Juvenile offenders, with popular sociological explanations. *Criminology*, 13, 427-448.
- Ried, S. T. (2003). *Crime and criminology*. New York: McGraw Hill Educatio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 influence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16, 201-228.
-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teffensmeier, D., & Allan, E. (1996). Gender and crime: Toward a gendered theory of female offend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459-487.
- Sutherland, E. H. (1970). Differential association. In M. E. Wolfgang, L. Savitz, & N. Johnston (Eds.), *The Soci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New York: John Wiley.

ABSTRACT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delinquenc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determinants

No, Unkyung* · Jung, Song* · Hong, Sehe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latent profiles based on delinquency patterns of children, and to test the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on determining the latent profiles. We used the surve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collected in 2011,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four different latent profil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e., drinking/violence/gambling group, theft group, smoking/drinking group, and low-level delinquency group) and for middle school students (i.e., middle-level delinquency group, high delinquency and absence group, drinking/pornography group, and low-level delinquency group).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emotional regulation, optimism, and academic competenc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profiles. On the other hand, for middle school students, gender, emotional regulation,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parental emotional support, academic competence, and friend relationship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profiles.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can be helpful in developing appropriat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reducing the future delinquency of adolescents.

Key Words : latent profiles, children and adolescents, delinquency

투고일 : 2014. 9. 15, 심사일 : 2014. 9. 26, 심사완료일 : 2014. 10. 20

* Korea University